

공동체 활동 공유 · 지향성 모색

전주시, '공동체 어울림 심포지엄' 개최... 우수공동체 · 유공 단체 시상 등 소통의 시간 가져

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일 데어이호텔에서 온두레공동체 회원과 마을관리공동체 회원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공동체의 지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체 어울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활동해온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와 마을관리공동체들은 교육과 공예, 생활문화, 지역문제 해결,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 활동 영상 시청 △우수공동체 · 유공 단체 시상 △

나의 공동체 이야기 △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공동체 지향성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 △개별 네트워크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전공연으로 온두레공동체 디딤·이음·희망 단계를 모두 마치고 지난 2020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느루걸음 공동체의 '느루걸음장애이인양상블연주단'의 공연도 더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활발히 활동해온 5개 온두레공동체와 3개 마을관리공동체(마을계획수립) 등 우수공동체에 전주시장상이 수여됐다.

이어 '나의 공동체이야기'에서는 2017년 디딤단계 공동체인 '전북문화사관'의 서귀석 대표, 2017년 희망완료 공동체인 '천사길사립들' 및 노송

동마을관리공동체의 김성국 대표, 2022년 이음단계 공동체인 '나는길이다공동체'의 박동진 회원, 양경란 전주시공동체 협의회장 등 4명이 그간의 활동 내용과 문제극복 사례 등을 다른 공동체들과 공유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또 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과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체 지향성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를 통해 2~5개 동이 하나의 권역을 이뤄 완산구 6개 권역과 덕진구 4개 권역 등 총 10개 권역별로 팀을 이루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지향할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탁회의에서는 권역별 퍼실리테이터가

공동체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공동체 회원은 "공동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시민들에게 공동체 정신이 전파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공동체들이 타 공동체들과 상호연계 및 협력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공동체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는 지난 1일 혁신도시 시계탑 상가에서 '다시 도약하는 골목상권'이라는 꿈(Dream)을 주제로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리는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다시 도약하는 골목상권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최

코로나19와 기나긴 경기침체로 힘겨운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혁신도시 시계탑 상가에서 '다시 도약하는 골목상권'이라는 꿈(Dream)을 주제로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리는 '제2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영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유정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유장명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범석 국민연금공단 ESG경영부장, 골목상권 협의체 대표,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골목상권 협의체 대표가 함께 모여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플래카드 세리머니와 트리 점등식 등을 선보였다. 또, '자전거탄풍경'과 지역예술인의 레트로 감성 콘서트까지 더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의 후원을 받아 축제 참여 후 민속도 조사에 참여하면 혁신도시 시계탑 상가와 대방디엥시티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지급됐다.

지난 겨울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혁신 시계탑 상가에 이어 평화동 새터공원 일원(3일)과 혁신동 대방디엥시티 상가(3일)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공구거리(9일) △혁신동 기지제(10일) △객리단길 상권(10일) △송천2동 구간로 일대 상권(17일)에서 각각의 상권별 특색과 주요 타깃층에 맞는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와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이 릴레이로 개최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상인과 주민, 지역공동체,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골목상권 회복을 돕기 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들을 제공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넘어 다시 도약하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권역별 수행기관 13개소 선정 완료

전주시는 '2023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내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존 11개 권역에서 13개 권역으로 확

대 했다. 이 권역별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13개 수행 기관에서는 전담복지사 28명과 생활지원사 378명을 선발해 노인

복지를 담당한다.

특히 내년 활동 인원은 올해와 비교해 전담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70명이 증원되어 6,150여 명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사자 채용 신청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원하는 권역의 수

행기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각 수행기관은 중사자 채용 신청자를 상대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별 홈페이지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 수행기관 시설 관계자들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사자 인력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개방화장실 집중 점검 · 지정 확대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개방화장실을 오는 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시설물 청결, 편의용품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추가적인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해 지정 가능한 곳의 건물주와 지속 협의 노력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는 운영자분들께 감사하며, 개방화장실 이용 시 내 집처럼 시설물을 아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 대표농산물 캐릭터 3종 출시

미나리 · 배 · 복숭아 활용 나리 · 배다감 · 도도



전주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 대표농산물인 미나리 · 배 · 복숭아를 활용한 농산물 캐릭터 3종(나리, 배다감, 도도)을 출시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가 지역 대표농산물 캐릭터를 활용해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 대표농산물인 미나리 · 배 · 복숭아를 활용한 농산물 캐릭터 3종(나리, 배다감, 도도)을 출시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방문객에게 농산물 캐릭터 쿠키(에코백, 텀블러 등)를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주 농산물과 가공식품 홍보 등에 활용해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다.

김중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주 대표농산물 캐릭터 출시 및 쿠키 제작과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위반건축물 단속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한옥마을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한옥마을의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 및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선 위반,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최아영 기자

